

##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실태,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의 상태 비교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Comparison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St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and Problem Drinking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음주실태,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의 상태 비교를 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181명 이었다. 자료 분석은 정상음주 군과 문제 음주 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음주횟수로 볼 때 음주횟수가 일 년에 1-4회인 군보다 일주일에 2-3회인 군에서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21.53배 높았으며, 음주동기는 음주동기가 낮은 군 보다 음주동기가 높은 군에서 5.96배, 음주문제발생경험은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낮은 군에 비해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높은 군에서 8.80배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은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절주교육, 문제음주선별과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음주가 될 위험성을 낮추고, 건진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respect to drinking habit,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Ed note: confirm edited version; original is a bit unclear in intent) Subjects includ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some areas,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and May, 2018. A total of 18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rmal and drinking-problem group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of drinking problem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The findings show that the frequency of drinking, r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life stress, and prior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recorded a high risk ratio for drinking problems. Specifically, the group with a drinking frequency of 2~3 times per week showed a risk ratio that was 21.53 times higher than the group with a drinking frequency of 1~4 times per year. The group of higher drinking motives recorded a risk ratio that was 5.96 times higher than the group of lower drinking motives. The group of higher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showed a risk ratio that was 8.80 times higher than the group of lower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In conclusion, the frequency of drinking, r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life stress, and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were factors highly related to the drinking problems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highlight that careful evaluation of drinking habit of college students are needed. Moreover, periodic temperance education and programs designed to identify and prevent drinking problems are necessary to lower the risk of developing drinking problems and promote a safe drinking culture.

**Keywords** : Alcohol drinking, AUDIT-K, Life stress, Problem drinking,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

Tel: +82-43-830-8841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May 30, 2018

Revised (1st June 19, 2018, 2nd June 25,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에서 허용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음주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술을 마시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1]. 이미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인한 정신 및 신체건강문제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2], 서구화된 생활양식의 변화와 경제성장과 더불어 음주소비인구 및 알코올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3].

특히, 대학생의 50%이상은 폭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4],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음주율도 늘고 있어 2015년에는 60.6%, 2016년도 61.9%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대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62.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여성의 월간 폭음 비율도 44.5%로 나타났다. 대학생 음주실태 AUDIT-K 점수 비율로 나타난 문제음주 점수는 남학생이 8.2%, 여학생이 28.3%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젊은 여성의 음주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5].

여성의 음주는 남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며, 또한 음주로 인한 생활관리 문제, 폭력, 성문제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6], 건강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학 생활 중 일상화된 음주문화로 인하여[7],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폭음률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아 20대 여성의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음주는 대부분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알코올에 대한 자신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는 많은데[8], 이로 인해 신체건강문제, 학업문제, 정신건강, 일상생활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폭력 등 무절제한 행동양상으로 불쾌한 경험, 교통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9] 대학생의 문제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음주율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문제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문제음주라 하는데, 문제음주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문제음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기에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음주관련 선행연구로 음주동기, 흡연경험, 음주기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자기 효능감 등[10-12]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는 대학의 자유로운 환경이 무분별한 음주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음주형태가 특정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행동이나 버릇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 및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음주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어 간호대 여학생에서도 음주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나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형태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미래 건강 요원이 되어 대상자의 음주습관[11]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실태와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문제음주발생 및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 음주 군과 문제음주 군으로 분류하여 간호대 여학생들의 음주실태,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의 상태 비교를 통해 정상음주 군과 문제음주군의 특성과 문제음주 관련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간호대 여학생의 문제음주에 효과적인 예방 및 건강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 여학생의 정상음주 군과 문제음주군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상음주 군과 문제음주 군의 상태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음주문제경험발생,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문제음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문제음주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시에 위치해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하였다. 본 연구는 J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 1044297-HR-201711-002-01).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190부 이었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3]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15, 예측변수 8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60명이 요구 되어 본 연구대상자인 181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문제음주 관련 요인인 일반적 특성, 음주동기, 문제음주, 음주문제발생 경험, 생활스트레스, 우울 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거주지, 종교, 흡연, 평소 스트레스정도, 음주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음주동기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 이유,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Shin[14]이 Cox와 Kilnger[15]의 음주동기 척도와 Cooper[16]의 음주동기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한 16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 등의 음주동기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음주 동기는 4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합이 클수록 음주동기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분류 하였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고양동기 .76, 대처동기 .89, 동조동기 .80, 사교동기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 2.3.2 문제음주(알코올 사용 장애 척도 한국판;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알코올장애 간이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기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년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6개국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17]이 번안하고 한국 실정에 맞춰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음주빈도, 의존 증상의 여부, 알코올로 야기된 문제 여부로 구성 되어있다. 전체 점수범위는 0-40점이며, 전체의 합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빈도, 음주의존도 및 유해한 사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의 기준을 Kim 등[18]의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적용한 결과 AUDIT-K 12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여 12점으로 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88로 나타났다.

### 2.3.3 음주문제발생경험

음주문제 중 문제 음주를 측정하기 위하여 Shin[19]이 개발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사회적 기능 손상 경험, 행동상 문제경험,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경험 등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각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5점 Likert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분류 하였다.

### 2.3.4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Kim, Yi[2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 및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대인관계 차원인 이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당면문제 차원인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 등 8개 하위요

인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하여 낮은 군(Low group)과 높은 군(High group)으로 분류 하였다. 개발당시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 2.3.5 우울(CES-D)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21]를 Chon, Choe, Yang[22]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의 경험빈도를 4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20문항 중 긍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0에서 60으로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22]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 정상음주 군과 문제음주 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의 문제음주군 별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 t-test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발생,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제음주군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제음주군의 특성비교는

Table 1과 같다. 총 181명의 간호대 여학생 중 정상음주군은 112명(61.9%), 문제음주군 69명(38.1%)로 분류되었으며, 연령은 18세 이하가 23명(12.7%), 21세 이상이 57명(31.5%)로 나타났다( $p=.020$ ). 대부분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흡연은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6명, 97.2%). 정상음주 군에서는 연령은 21세 이상이 44명(39.6%)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35명(31.3%)으로 가장 많으며,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인 군이 66명(58.9%)로 응답하였다. 문제음주군의 경우 20세에서 22명(31.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에 25명(36.2%)로 높게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정도에서도 높은편 이라고 응답한 군이 38명(55.1%)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37$ )(Table 1).

### 3.2 대상자의 음주경험과 문제 음주군 별 특성

대상자의 음주경험과 문제음주군 별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음주량은 맥주 500ml 3-4잔이 49명(27.1%)과 맥주 500ml 5-7잔 49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횟수는 한 달에 2-3회가 80명(44.2%), 마시는 속도는 보통속도가 69명(38.1%)로 나타났다. 정상음주 군에서는 맥주 500ml 3-4잔이 33명(29.5%), 음주횟수는 한 달에 1회가 48명(42.8%), 마시는 속도는 보통속도가 41명(36.5%)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문제음주 군에서는 음주량 맥주 500ml 5-7잔이 33명(47.8%)로 높게 나타났고, 음주횟수는 한 달에 2-3회가 38명(55.2%)로 높게 나타났고( $p<.001$ ). 마시는 속도는 빨리 마신다는 군이 32명(46.4%)으로 나타났다( $p<.001$ )(Table 2).

### 3.3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의 문제음주군 별 특성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의 문제음주군 별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문제음주(AUDIT)는 점수범위는 1-40점으로 평균 9.74±6.40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군은 16.33±5.09, 정상음주군은 5.67±2.67로 나타났다( $p<.001$ ). 음주문제 발생경험은 전체 평균 25.09±8.55로 나타났고, 정상음주군 평균은 22.31±5.60, 문제음주군 평균은 29.60±10.45로 나타났으며( $p<.001$ ), 문제음주 군에는 음주문제 발생경험이 높은 군은 37명(74.0%)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점수 범위가 1-10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86.42±18.06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 drinking group-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ormal Group		Problem drinking Group		$c^2$	$p$
		AUDIT-K* <12		AUDIT-K* >12			
	n (%)	n (%)	n (%)	n (%)			
Age	≤ 18	23 (12.7)	10 (8.9)	13 (18.8)	9.82	(.020)	
	19	49 (27.1)	28 (25.0)	21 (30.5)			
	20	52 (28.7)	30 (26.5)	22 (31.9)			
	21 ≤	57 (31.5)	44 (39.6)	13 (18.8)			
Grade	Freshman	54 (29.8)	29 (25.9)	25 (36.2)	2.59	(.460)	
	Sophonmore	54 (29.8)	35 (31.3)	19 (27.5)			
	Junnior	49 (27.1)	31 (27.7)	18 (26.2)			
	Senior	24 (13.3)	17 (15.1)	7 (10.1)			
Type of residency	Domitory	166 (91.7)	101 (90.1)	65 (94.3)	1.33	(.513)	
	Boarding house	6 (3.3)	5 (4.5)	1 (1.4)			
	Parent's house	9 (5.0)	6 (5.4)	3 (4.3)			
Religion	Protestant	29 (16.0)	18 (16.0)	11 (15.5)	5.19	(.158)	
	Roman catholic	16 (8.8)	6 (5.4)	10 (14.5)			
	Buddhism	9 (5.0)	7 (6.3)	2 (2.9)			
	Others	127 (70.2)	81 (72.3)	46 (67.1)			
smoking	Yes	5 (2.8)	2 (1.8)	3 (4.3)	1.04	(.283)	
	No	176 (97.2)	110 (98.2)	66 (95.7)			
Friend of the opposite sex	Yes	81 (44.8)	48 (42.9)	33 (47.8)	0.42	(.309)	
	No	100 (55.2)	64 (57.1)	36 (52.2)			
Sleep time	9-10hr	51 (28.2)	37 (33.1)	14 (20.3)	3.44	(.179)	
	7-8hr	114 (63.0)	66 (58.9)	48 (69.6)			
	5-6hr	16 (8.8)	9 (8.0)	7 (10.1)			
Usual stress level	Low	9 (5.0)	6 (5.4)	3 (4.3)	6.56	(.037)	
	Average	94 (51.9)	66 (58.9)	28 (40.6)			
	High	78 (43.1)	40 (35.7)	38 (55.1)			
Total	181 (100.0)	112 (61.9)	69 (38.1)				

AUDIT-K\*;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the drinking experiences and problem drinking groups

Variables	Total	Normal Group		Problem drinking Group		$c^2$	$p$
		AUDIT-K* <12		AUDIT-K* >12			
	n %	n %	n %	n %			
Drinking quantity	250ml of beer or less	6 (3.3)	6 (5.4)	0 (0.0)	47.81	.000	
	One 500ml glass of beer	23 (12.7)	22 (19.6)	1 (1.4)			
	Two 500ml glasses of beer	33 (18.2)	28 (25.0)	5 (7.2)			
	Three to four 500ml glasses of beer	49 (27.1)	33 (29.5)	16 (23.2)			
	Five to seven 500ml glasses of beer	49 (27.1)	16 (14.2)	33 (47.8)			
	Eight 500ml glasses of beer	21 (11.6)	7 (6.3)	14 (20.4)			
Drinking frequency	1~4 times a year	20 (11.0)	17 (15.2)	3 (4.3)	36.70	.000	
	Once a month	57 (31.5)	48 (42.8)	9 (13.0)			
	2~3 times a month	80 (44.2)	42 (37.5)	38 (55.2)			
	2~3 times a week	24 (13.3)	5 (4.5)	19 (27.5)			
Drinking velocity	Very slowly	7 (3.9)	6 (5.4)	1 (1.4)	18.85	.001	
	Slowly	36 (19.9)	32 (28.6)	4 (5.8)			
	Average	69 (38.1)	41 (36.5)	28 (40.6)			
	Fast	62 (34.3)	30 (26.8)	32 (46.4)			
	Very fast	7 (3.9)	3 (2.7)	4 (5.8)			
Total	1 (100.0)	112 (61.9)	69 (38.1)				

AUDIT-K\*;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나타났으며, 정상음주군 평균은 83.66±17.68, 문제음주군 평균은 89.86±18.64로 나타났다( $p<.001$ ). 생활스트레스는 전체 평균은 86.00±18.06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군에서는 평균이 89.86±18.64이며( $p=.025$ ),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군은 39명(48.1%)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의 점수범위는 1-80점으로 전체 평균은 41.08±10.96으로 나타났고, 정상음주 군에서 평균은 37.18±10.46, 문제음주군 평균은 47.40±8.63으로 나타났으며( $p<.001$ ), 문제음주 군에서 음주동기가 높은 군은 53명(64.8%)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점수범위가 0-6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21.12±10.24로 나타났고, 정상음주군 평균은 20±10.54, 문제음주군 평균은 21.82±9.78로 나타났으며( $p=.469$ ), 문제음주 군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군은 45명(65.2%)으로 나타났다(Table 3).

### 3.4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음주문제발생경험, 생활스트레스, 음주동기,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와 음주문제 발생경험( $r=.45, p<.001$ )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와 음주동기( $r=.53, p<.001$ )도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우울( $r=-.02, p=.980$ )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문제 발생경험은 생활스트레스( $r=.37, p<.001$ )와 양의관계로 나타났으며, 음주동기( $r=.31, p<.001$ ), 우울( $r=.17, p=.018$ )과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음주동기( $r=.27, p<.0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우울( $r=.65, p<.001$ )과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는 우울( $r=-.29, p=.002$ )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Characteristics by the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life stress, drinking motives,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groups

Variables	Total	Normal Group	Problem drinking Group	t	p
		AUDIT-K* <12	AUDIT-K* >12		
	Mean±SD/n(%)	Mean±SD/n(%)	Mean±SD/n(%)		
Problem drinking	9.74±6.40	5.67±2.67	16.33±5.09	341.2	.000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25.09±8.55	22.31±5.60	29.60±10.45	37.28	.000
Low	112 (61.9)	99 (75.6)	32 (26.0)	37.69	.000
High	69 (38.1)	13 (24.4)	37 (74.0)		
Life stress	86.00±18.06	83.66±17.68	89.86±18.64	5.11	.025
Low	112 (61.9)	70 (70.0)	30 (51.9)	5.79	.016
High	69 (38.1)	42 (30.0)	39 (48.1)		
Drinking motives	41.08±10.96	37.18±10.46	47.40±8.63	46.45	.000
Low	112 (61.9)	72 (64.3)	16 (35.2)	28.86	.000
High	69 (38.1)	40 (35.7)	53 (64.8)		
Depression	21.12±10.24	20±10.54	21.82±9.78	.526	.469
Depression(No) >16	112 (61.9)	57 (50.9)	24 (34.8)	4.48	.034
Depression(Yes) ≤16	69 (38.1)	55 (49.1)	45 (65.2)		

AUDIT-K\*: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Table 4.** Correlations of Problem drinking,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life stress, drinking motives and depression

Variables	1	2	3	4	5
		r(p)	r(p)	r(p)	r(p)
1. Problem drinking AUDIT	1				
2.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45 <sup>(**)</sup> (.000)	1			
3. Life stress	.01 (.170)	.37 <sup>(**)</sup> (.000)	1		
4. Drinking motives	.53 <sup>(**)</sup> (.000)	.33 <sup>(**)</sup> (.000)	.27 <sup>(**)</sup> (.000)	1	
5. Depression	-.02 (.980)	.17 <sup>(*)</sup> (.018)	.65 <sup>(**)</sup> (.000)	.29 <sup>(**)</sup> (.002)	1

\*\*=  $p<.001$ , \*= $p<.005$

### 3.5 문제음주 관련요인

대상자의 일반적인특성, 음주경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 우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Hosmer and Lemeshow Test의 카이제곱값은 7.189, (p=.409)로 적합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문제음주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한결과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는 연령에서는 18세 이하 군보다 19세에서 0.57배(95% CI=0.21-1.56) 높았고, 평소스트레스수준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 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90배(95% CI=0.44-8.14)로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나타났다. 음주횟수에서는 음주횟수가 일 년에 1-4회인 군보다 일주일에 2-3회인 군에서 21.53배(95%

CI=4.46-103.9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속도는 아주 천천히 마시는 군보다 빨리 마시는 군에서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8.0배(95% CI=0.59-106.93) 높았고, 음주동기는 음주동기가 낮은 군 보다 음주동기가 높은 군에서 5.96배(95% CI=3.02-11.76) 높았다. 생활스트레스에서는 생활스트레스가 낮은 군 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2.16배(95% CI=1.17-3.99) 높았으며, 음주문제발생경험에서는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낮은 군에 비해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높은 군에서 8.80배(95% CI=4.17-18.58) 높았다. 우울에서는 우울증세가 없는 군보다 우울증세가 있는 군에서 1.94배(95% CI=1.04-3.60) 높았다. 결과로 볼 때,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 발생경험이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았다(Table 5).

Table 5.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Variables		Problem drinking				p
		B	OR	95%CI		
				Low	High	
Age	≤ 18		1			.025
	19	-.55	.57	.21	1.56	.281
	20	-.57	.56	.20	1.52	.258
	21 ≤	-1.48	.22	.08	.63	.005
Usual stress level	Low		1			.039
	Average	-.16	.84	.19	3.63	.825
	High	.64	1.90	.44	8.14	.387
Drinking frequency	1-4 times a year		1			<.001
	Once a month	.06	1.06	.25	4.39	.933
	2-3 times a month	1.63	5.12	1.39	18.87	.014
	2-3 times a week	3.07	21.53	4.46	103.90	<.001
Drinking velocity	Very slowly		1			.003
	Slowly	-.28	.75	.01	7.93	.811
	Average	1.41	4.09	.46	35.91	.203
	Fast	1.85	6.40	.77	56.32	.094
	Very fast	2.07	8.00	.58	106.9	.116
Drinking motives	Low		1			<.001
	High	1.78	5.96	3.02	11.75	
Life stress	Low		1			.013
	High	.77	2.16	1.16	3.90	
Experiences with drinking problems	Low		1			<.001
	High	.17	8.80	4.11	18.57	
Depression	No		1			.035
	Yes	.66	1.94	1.04	3.60	

## 4. 논의

본 연구는 AUDIT-K를 이용하여 정상음주 군과 문제음주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 여학생의 문제음주를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총 181명의 간호대 여학생 중 정상 음주군은 61.9%(112명), 문제음주군 38.1%(69명)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상자의 40.6%가 AUDIT 위험 음주 군으로 나타났으며[20], 의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Jeon

등[11]의 연구결과도 40.5%로 나타나 본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분류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28.3%로[5]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대생들의 문제음주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여대생 음주폐해와 심각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건강에 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체성분 구성상 쉽게 취해 음주로 인한 부작용과 손상정도가 높을 수 있고, 가임기 여성일 경우 불임이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3], 생식능력, 임신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음주에 대한 조기선별 및 여대생들의 문제음주 및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음주 측정은 연구자마다 측정도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폭음 및 문제음주가 남녀 모두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특히, 여성의 음주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미혼여성의 폭음 및 문제음주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음주가 높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져 여성들의 음주가 보편화되고 음주빈도가 높아지면서 위험음주 여성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의 특성[25]이 음주로 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흡연은 술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신체적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으며, 흡연과 음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26], 흡연을 하는 남녀 성인 모두 폭음 및 문제음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는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행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 여의 다양한 대상자로 하여 흡연과 음주형태와의 관계도 비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음주경험으로 볼 때 문제 음주 군에서는 음주량이 맥주 500ml 5-7잔이 47.8%로 높게 나타났고, 음주횟수는 한 달에 2-3회가 55.2%, 마시는 속도는 빨리 마신다는 군이 46.4%로 나타났으며, 문제 음주군에서 음주량, 빈도, 횟수가 높았다. 이는 음주빈도, 음주소비량이 문제음주의 관련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27]와 유사하였다.

또한, 음주동기가 높은 군에서는 문제음주 군이 64.8%로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인 Lee와 Chung[28]의 연구에서도 음주동기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부분이라고 하였고, 술을 우울한 기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음주동기는 문제음주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높은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량이나 빈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건전한 대학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보건교육 및 금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정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사고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활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48.1%가 문제음주 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여대생들은 장래에 대한 걱정과 가치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29]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울에서는 우울증상이 있는 군중에서 문제음주 군은 65.2%로 나타났는데, Chung[30]의 연구에서도 우울성향이 문제음주 영향요인으로 알코올 사용량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에서도 음주동기와 문제음주발생경험이 양의 상관관계로, 생활스트레스와 음주동기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여대생들의 문제음주 발생은 문제음주발생경험이나 사적인 모임이나 대인관계 유지 등의 음주동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6], 생활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31]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건강한 음주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절주운동에 참여하고, 운동-레저 활동 등 건강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유지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는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의 문제음주는 음주동기와 음주빈도와 음주소비량이 관련요인[27]으로 나타났고,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관련문제와 문제음주와 관련[31]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음주 영향요인으로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영향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 여학생들의 음주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주교육 및 미래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대학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 대학의 학과 여학생들로만 연구대상이 이루어져 전체 대학생의 문제 음주 특성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가 더 필요하며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음주실태, 음주동기와 문제음주의 상태 비교를 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181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정상음주 군과 문제 음주 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고,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문제음주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횟수로 볼 때 음주횟수가 일 년에 1-4회인 군보다 일주일에 2-3회인 군에서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21.53배 높았으며, 음주동기는 음주동기가 낮은 군보다 음주동기가 높은 군에서 5.96배, 음주문제발생경험은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낮은 군에 비해 음주문제발생경험이 높은 군에서 8.80배 문제음주에 대한 위험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은 음주횟수, 마시는 속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음주문제발생경험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절주교육, 문제음주선별과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음주가 될 위험성을 낮추고,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별과 음주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대학생 및 일반여성을 포함한

정상 및 문제음주군의 반복연구로 여성 문제음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References

- [1] J. Joo, "Korean culture of heavy drinking and directions on policy related to alcoholis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Vol.19, No.1, pp.73-115, 2009.
- [2] R. A. Breslow, P. M. Guenther, W. Juan, B. I. Graubard, "Alcoholic beverage consumption, nutrient intakes, and diet quality in the US adult population, 1999-2006",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Vol.110, No.4, pp.551-562, 2010. DOI: <https://dx.doi.org/10.1016/j.jada.2009.12.026>
- [3] B. J. Kim, B. S. Kim, J. H. Kang, "Alcohol consumption and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men: A 3-year follow-up study", *Circulation Journal*, Vol.76, No.10, pp.2363-2367, 2012. DOI: <https://dx.doi.org/10.1253/circj.CJ-12-0315>
- [4] K. H. Suh, S. A. Yang, "The rule of alcohol use as coping method with stress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Vol.18, No.1, pp.331-352, 2011.
- [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From: <https://knhanes.ods.go.kr/knhane>)
- [6] H. S. Rhu, M. J. Back, "Factor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3, No.3, pp.307-315, 2012.
- [7] M. Kim, K. Shin, "A Study of the smoking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3, No.4, pp.23-27, 2015.
- [8] E. L. Son, S. D. Ko,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affect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female high-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Vol.12, No.2, pp.155-162, 2011.
- [9] B. M. Bewick, B. Mulhern, M. Barkham, K. Trusler, A. J. Hill, W. B. Stiles, "Changes in undergraduate student alcohol consumption as they progress through university", *BMC Public Health*, Vol.8, No.1, Article ID 163, 2008. DOI: <https://dx.doi.org/10.1186/1471-2458-8-163>
- [10] H. E. Kim, K. Park, E. H. Jung, J. Y. Han,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dysfunctional metacognition on problematic drink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Paper presented at",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conference*, Vol.1, pp.340-341, 2009.
- [11] B. H. Jeon, C. W. Kim, S. E. Kim, S. J. Lee, D. H. Lee, H. Noh, "Does The Drinking Behavior of Interns and Residents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the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and Referral to Treatment (SBIRT) Regarding Alcoh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Vol.21, No.4, pp.495-503, 2010.

- [12] P. H. Park, M. H. Chon, G. Y. Cho, D. H. Kim,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110-119, 2011.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1.17.1.110>
- [13]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DOI: <https://dx.doi.org/10.3758/BF03193146>
- [14] H. U.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5, No.1, pp.93-109, 1999.
- [15] W. M. Cox, E. Klinger, "A Motivational model for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97, No.2, pp.168-180, 1990.  
DOI: <https://dx.doi.org/10.1037/0021-843X.97.2.168>
- [16] M. L. Cooper,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Vol.6, No.2, pp.117-128, 1994.  
DOI: <https://dx.doi.org/10.1037/1040-3590.6.2.117>
- [17] B. U. Lee, C. H. Lee, P. G. Lee, M. J. Namk, "AUDIT :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Korea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Vol.4, No.2, pp.83-92, 2000.
- [18] J. S. Kim, M. K. Oh, B. K. Park, M. K. Lee, G. J. Kim, "Screening criteria of alcoholism by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in Korea", *Korean J Fam Med*, Vol.20, No.9, pp.1152-1159, 1999.
- [19] H. W. Shin, "Effects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problem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1998.
- [20] K. K. Chon, K. 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2, pp.316-335, 2000.
- [21] L. S. Radloff,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977.
- [22] K. K. Chon, S. J. Choe, B. C. Yang.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in the Korean vers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Vol.6, No.1, pp.59-76, 2001.
- [23] E. Y. Do, Y. R. Hong, "Factors affecting pregnant women's drink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3, pp.284-307, 2011.
- [24] J. H. Kim, S. Lee, J. Chow, J. Lau, A. Tsang, J. Choi, S. M. Griffiths, "Prevalence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binge drinking, alcohol abuse, and Alcohol dependence: A population study of Chinese adults in Hong Kong", *Alcohol and Alcoholism*, Vol.43, No.3, pp.360-370, 2008.  
DOI: <https://dx.doi.org/10.1093/alcac/agm181>
- [25] S. Lemke, T. K. Schutte, P. Brenna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influences and stressors linked to increased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Vol.69, pp.695-702, 2008.  
DOI: <https://dx.doi.org/10.15288/jsad.2008.69.695>
- [26] J. A. Oliver, M. D. Blank, K. J. Van Rensburg, D. A. Mac Queen, T. H. Brandon, D. J. Drobos, "Nicotine interactions with low-dose alcohol: pharmacological influences on smoking and drinking motiv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No.1222, No.4, pp.1154-1165, 2013.  
DOI: <https://dx.doi.org/10.1037/a0034538>
- [27] M. S. Yun, H.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3, pp.109-137, 2011.
- [28] S. H. Lee, S. E. Chung, "Drinking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Health*, Vol.12, No.1, pp.1-19, 2011.
- [29] M. R. Kong, Y. J. Chung, "A Stor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Focus on the college of Pyongtaek C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1, pp.1-22, 2013.
- [30] S. H. Chung,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27, pp.176-198, 2007.
- [31] B. Y. Jung, Relations of stress with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related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2009.

김종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노인간호